

SK 텔레콤

Bloomberg Code (017670)

Reuters Code (017670.KS)



주가 (4월 25일)

51,000원

시가총액

10,954.3원

Analyst

김아람 선임연구원

02-3772-2668

✉ kimaram@shinhan.com

FY24~26 주주환원 정책 발표 정리

- 전일(4/25) 공시를 통해 FY24~26 매년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% 이상을 현금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/소각하겠다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
- 기존에는 별도 기준 EBITDA-CapEx의 30~40%를 배당했었음. 23년에는 주당 3,350원(1Q~3Q23 830원 + 4Q23 1,050원)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, 이중 2천억원 소각
- 한편 시장이 24년 SK텔레콤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대했던 바는 ① 24F DPS 3,540원(전년 수준) + α (자사주 매입/소각) 혹은 ② 24F DPS 3,320원(분기배당 830원*4) + α . 전일 기준 24F DPS 컨센서스가 3,545원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①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음

SK텔레콤 현금 배당에 대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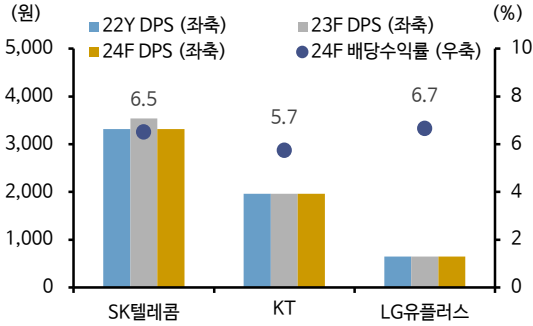
(십억원)	2022	2023	2024F	2024 컨센	2025F
별도 순이익	869	1,060	1,082	1,060	1,067
연결 순이익	948	1,146	1,169	1,146	1,190
현금 배당액	724	766			
별도 기준 배당성향 (%)	83.2	72.2			
DPS (원)	3,320	3,350	3,320	3,545	3,320
2024년 현금 배당액 Simulation					
최소 배당액(연결 순이익의 50%)			585	573	595
Case ① 24F DPS 3,350원(전년수준)			754	754	754
Case ② 24F DPS 3,320원(분기 830원*4)			707	707	707

자료: QuantiWise, 신한투자증권 추정

- 그러나 회사는 '최소' 배당액만을 약속했기에 엄밀히 따져보면 이번 주주환원 정책은 다소 아쉬움. 특히, (주)SK의 그룹사 전반에 대한 순부채(Net Debt) 관리 니즈를 고려했을 때 24F DPS는 3,320원(Case ②)으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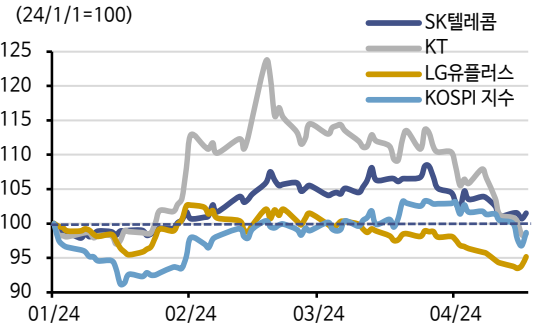
- 다만 아쉬운 주주환원 정책에도 주가 변동성은 크지 않을 수 있겠음. 회사는 최소 주주환원 규모를 약속했을 뿐 상한을 정해놓지 않았고(현금배당을 더 많이 하거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/소각을 발표해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음), Worst이자 Base Case인 24F DPS 3,320원을 가정해도 배당수익률이 6.5%에 달하기 때문. 방어주/배당주로서 SK텔레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

통신 3사 배당수익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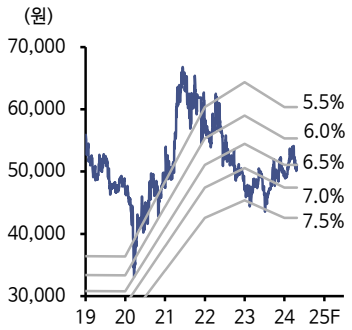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Wise, 신한투자증권

YTD 상대주가 - SK텔레콤 외 연초 주가 수준 하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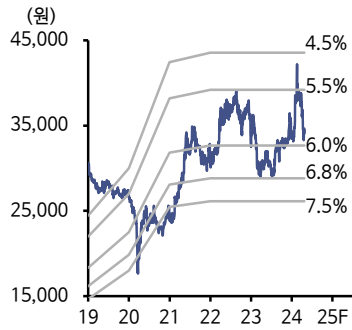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Wise, 신한투자증권

SK텔레콤 12MF배당수익률 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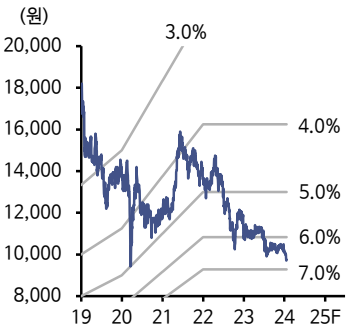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Wise, 신한투자증권

KT 12MF 배당수익률 밴드



자료: QuantiWise, 신한투자증권

LG유플러스 12MF 배당 밴드



자료: QuantiWise, 신한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- ◆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(작성자: 김아람)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고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◆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에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.